

지능화되는 땅밋기 이어지는 종교편향

구미 도리사 주지 묘장 스님은 10월 19일 지인들이 찾아와 사찰을 소개하기 위해 경내지 서대에 올랐다가 황당한 장면을 목격했다. 구미 주천양교회 목사와 신도들이 서대에서 예배를 하고 있었기 때문이다. 스님은 당장 교인들을 제지했지만 해당 목사와 신도들은 "이곳에서 예배하는 것이 무슨 문제냐"고 반박했다.

지난해 찬송가 공연으로 물의를 빚었던 대구시립합창단이 10월 7-11일 열린 '제1회 대구합창제전'에서도 영어로 된 찬송곡을 불러 논란이 됐다. 지역불교계는 "공공행사에 찬송가를 부른 것은 종교편향"이라고 즉각 반박해 대구시장을 방문하고 항의했다. 결국 문제가 된 삼십이회장은 교체됐고, 합창단 단무장은 보직 변경됐다.

올해에도 굵직한 땅밋기 기도, 해불, 종교편향 사건이 이어지고 있다. 다양한 형태의 종교 편향과 불교 모독 사례가 발생하고 있고 점차 대형화, 지능화 되지만, 불교계는 해당 단체에 제발 방지를 요구하는 공문을 보내는 정도에만 대응이 그치고 있다.

종단 대응 기구는 '유명무실'

'사후약방문'이라는 지적이 나오고 있는 이유이다.

현재 종교 편향과 해불 문제를 다루는 불교계 기구는 조계종 종교평화위원회가 유일하다. 2005년 설립된 조계종 종교평화위원회는 2011년 자성교과신결사자 진행되면서 화쟁위원회 등과 함께 결사추진본부로 편입됐다. 올해 다시 사회부로 이첩됐으나 조직은 많이 망가지고 상황이다.

2013년 3월 종교평화위원회 위원장은 임기 만료로 공석이 됐고, 현재까지 위원장 없이 업무가 진행되고 있다. 여기에 실무를 담당하는 직원은 1명이 배정돼 있다. 설립 이후 다양한 종교 인권 문제를 다루면서 세간의 이목을 집중시켰던 때와는 아주 상반되는 상황이다. 운영됐던 종교편향 모니터링단은 예산 부족을 이유로 사라진 지 오래다.

현재 불교계가 종교편향 등에 대한 관심을 보이지 않는 동안 일부 개신교도들의 보여준 행태는 예후가 좋지 않다. 종평위에 들어온 제보만으로 치밀해진 종교 갈등을 발굴하기는 어렵다는 지적이다.

단적인 예로 '이르는 모든 곳이 하나님 의 땅이 되길' 기도하는 땅밋기 기도는 그

수위가 매우 높아지고 치밀해졌다. 지난 7월 4일 부처님의 정각 성지 보드가야 마하보디 사원에서 일부 개신교 청년들이 찬송가를 부르며 예배를 보는 영상이 공개돼 여론의 뭇매를 맞았다.

충남 예산 기독교대한성결교회 소속 N교회 C담임목사는 지난해 4월 19일 수덕

땅밋기·市 합창단 편향 이어져도 종평위는 '사후약방문' 조치만 위원장 1년째 공석, 직원 1명뿐

모니터링·예방정책 개발 '불가능'

사에서 촬영한 자신의 '땅밋기' 사진을 SNS에 게재했다. 목사는 '마태복음 24:14'와 교회 십자가를 그리고 '수덕사는 예수 이름으로 무너질지이다. 이곳에 종들이는 주님 안으로 돌아올지이다' 라고 쓴 사찰 기와를 들고 있었다.

해불과 종교 모욕 사례는 더욱 당당해졌다. 서울 관악구 원각사는 올해 부처님오신

날을 맞아 내건 가로 연등이 훼손됐다. 훼손된 곳 위에는 교회 이름이 담긴 성경 문구 목판까지 올려놓는 대담함까지 보여줬고, 예수재단은 부처님오신날인 5월 6일 조계사 인근 공평사거리에서 집회를 열고 노상 전도까지 하기도 했다.

갈수록 지능화되고 다변화되는 종교편향, 해불 등을 대응하기 위해서는 속히 종단 대응 기구인 종교평화위원회가 제 제도에 올라와야 한다는 주장이 많다. 당장 시급한 조직 정비를 비롯해 종교 갈등을 근본적으로 방지하기 위한 종교평화법, 증오범죄방지법 등의 국가법 제정을 위한 연구와 시민사회 연대 활동이 전개돼야 한다는 것이다.

이에 대해 조계종 사회부 관계자는 "종교평화위원회라는 소임의 책임자를 찾기가 어려웠다"면서 "이번 종회가 개원하게 되면 책임자를 모색할 것"이라고 밝혔다.

예방적 차원의 모니터링에 대해서는 "현재 1명이 종평위 업무 담당하는데 나머지 부서원들도 함께 할 수 있도록 업무를 나눠서 통합 관리하겠다. 업무 상 상호 연관성이 있는 부분이 있으니 이 부분을 강화할 것"이라고 말했다. 신성민·배현진 기자

"절박한 심정으로 사라지는 것 기록"

내성천 지킴이 지을 스님, '물 위에 쓴 편지' 일반 공개

사람들이 떠나간 마을에 할머니 네댓 분과 진땀 한 마리, 그리고 스님이 남았다. 텐트안에 쪼그리고 앉아 라면, 미숫가루 등으로 끼니를 때우던 스님은 일년 동안 카메라를 들고 모래천을 돌아다니느라 까맣게 얼굴이 그을었다.

10월 21일 한국불교역사문화기념관에서 열린 '내성천, 물위에 쓰는 편지' 시사회에서 만난 지을 스님(사진)이었다.

지난해 개봉됐던 '모래천이야기'와 마찬가지로 하루에 위치한 내성천에서는 모래 유입이 중단돼 갈물이 말라갔고 축대가 무너졌다. 주변 농지에서는 지하수가 고갈됐다. 내성천이 어떻게 변화되는지 기록하고자 만들어진 것이 이번 작품이었다.

다큐멘터리는 '팀블랙'이라는 크라우드 펀딩 사이트에서 네티즌들의 후원으로 제작됐다. 116명이 십시일반 기부한 5백 75만원으로 항공촬영과 장비보충을 했다. 작품은 상영요청이 있을 때마다 찾아가는 상영회를 실시하며 따로 영화관 배급은 하지 않는다.

지을 스님은 이제까지의 작품을 두고 "세상에 진 빚 같은 것"이라고 했다. "주변 괴롭힘으로 일방적으로 맞고 있는 아이들



그냥 지나칠 수 없었다. 감사하게 여기는 것들이 떠나가고 무너지는 모습을 보고 안타깝다며 그냥 지나쳤을 때 느끼게 될 마음 빛이 두려웠다"는 것이다.

내성천을 살리기 위해 11월에는 가톨릭과 연계해 강길 걷기와 인강따기 등도 진행한다. 이와함께 낙동강 도록과 내성천 자료집, 내성천 생태 세밀화 화집도 발간된다.

또한 올해말까지 부지를 매입하고 내성천 회룡포 근처에 4대강 기록관을 세울 계획이다. 이곳에는 내성천과 낙동강의 변화에 대한 기록과 정부가 4대강 사업을 추진하면서 배포했던 홍보 동영상 등도 모아둘 예정이다.

스님은 얼마 전 내성천의 친구들과 진행했던 영주댐공사중지 가져본 소송이 승소 판결을 받았고, 법원은 모래 유입을 이유로 기각 결정했다. 법원은 대신 내성천의 친구들은 본안 소송을 진행할 수 있는 당사자 자격 자격을 얻었다. 내성천 1명사기 운동으로 6백평을 확보할 수 있었기에 가능한 일이었다. 지을 스님은 앞으로 가져본 즉시 항고와 영주댐 중지 및 철거 본안소송에 들어갈 예정이다.

배현진 기자

"창경궁 소재 오층석탑 봉은사로 이운해달라"

추진위 발족 및 기원법회

일제에 의해 서울 창경궁에 옮겨진 고려오층석탑의 반환에 봉은사가 나섰다.

봉은사는 10월 24일 경내 법당에서 이운 기원법회를 봉행하고 이운추진위 발족과 함께 서명운동을 시작했다. 앞서 봉은사는 문화재청에 '창경궁 소재 석탑 봉은사 의향서'를 보냈다. 봉은사는 의향서에서 "봉은사에 봉안된 보물 321호 '지정사년재명 고려청동루은향로'와 함께 고려석탑이 위치한다면 사격을 제고하고 아울러 국내외 참배객들에게 널리 알릴 수 있다"고 밝혔다.

이에 대해 문화재청은 반대 입장을 밝혔다. 문화재청 궁중문화재과 관계자는 "사측에서 고려 유물이 있으니 고려석탑을 내달라는 것은 이치에 맞지 않다. 선례가 된다면 연구없는 곳에서 다른 문화재도 연이어 요청할 것"이라며 "소재처 기록이 없다면 박물관에 우선 보관하는 것이 맞다고 본다"고 말했다.

이운추진위원회 위원장을 맡은 봉은사 주지 원학 스님은 이에 대해 "더이상 성묘문화재가 궁궐 장식물이나 박물관 전시물이 되어서 안된다"며 "먼저 사찰로 이전 후 원소장처가 밝혀지면 다시 이전하면 된다"고 말했다. 노덕현 기자



한마음선원(주지 해원)은 10월 19일 안양 본원에서 전국청년연합법회를 개최했다. 이날 법회에는 부산·대구·진주·제주·광명·광주 등 전국 15개 지원의 청년회 법우 500여 명과 전국 지원장 스님을 비롯한 청년회 법사 스님 등 2000여 사부대중이 참가했다.

한마음선원 전국 청년 신도 '한자리에'

10월 19일 본원서 전국청년연합법회 거행

한마음선원 전국 지원의 청년들이 14년 만에 한자리에 모여 대행 스님의 뜻을 새기고 마음을 나누는 자리를 가졌다.

한마음선원(주지 해원)은 10월 19일 안양 본원에서 전국청년연합법회를 개최했다. 이날 법회에는 부산·대구·진주·제주·광명·광주 등 전국 15개 지원의 청년회 법우 500여 명과 전국 지원장 스님을 비롯한 청년회 법사 스님 등 2000여 사부대중이 참가했다.

행사는 스대행 스님 각경전 현화 스대행 스님 비디오 영상 법문 판관 스대행 스님

취 영상 상영 스대행 스님에 편지 낭독 스대행 스님 영상공양 스대행 스님 재단 이사장 혜수 스님 현화 스님으로 진행됐다.

청년들은 오후에는 조별로 나누어 서로 허심탄회하게 이야기를 나누는 담선법회를 가졌으며 대행 스님이 생전 주석하던 서산정을 참배하는 시간도 가졌다.

한마음선원 청년회는 1980년 7월 창립된 이후로 국내 사찰 최대 규모의 청년회 모임으로 발전했다.

특히 매년 봉축일에 열리는 연등회에서 한마음선원 청년회가 만드는 연등은 가장

화려하고 장엄하기로 유명하다. 청년회는 1998년 연등축제의 연회에서 '용등(龍燈)'을 첫 시연한 것을 시작으로, 200년 제1회 창작등 경연대회에서 학등(鶴燈)으로 개인 창작등 부문 최우수상을 획득, 이후로 창작등 경연대회에서는 늘 우수한 입상성과 연등 축제의 봉축상, 특별 공로상 등을 수상했다.

매년 1회 대행 스님을 모시고 전국청년연합법회를 개최해오던 전국청년회는 2000년 이후부터 잠시 모임을 중단했다. 14년 만에 법회를 연 청년회는 올해를 시작으로 매년 10월 셋째 주 전국청년연합법회를 열 계획이다. 이나은 기자

"세월호 사건, 종교계 반성 기회로 삼아야"

오강남 교수, 불교평론 논단서

"세월호 사건을 통해 종교계는 처절한 반성을 해야 한다. 개인 스스로의 업의 결과로만 보는 표층종교에서 이시대의 삶의 지침을 줄 수 있는 살아있는 종교로 거듭나야 합니다."

계간 <불교평론>과 경희대 비폭력연구소가 주관하는 10월 열린논단에서의 일각이다. 오강남 리자이나대 교수(사진)는 10월 23일 서울 불교평론 세미나실에서 열린 '세월호 앞에서 종교는 무엇인가' 논단에서 종교계의 자성을 강조했다.

오 명예교수는 "지난 4월 중순에 일어난 세월호 참사는 어느 때보다 우리를 감당하기 힘든 슬픔에 잠기게 했다"며 "사고를 당해 울고 있는 사람들에게 종교가 할 일이란 겨우 천도제나 추도예배가 고작이었다. 모든 불행은 '신의 뜻' 이라거나 '업보' 때문이라고 설명해도 결과는 마찬가지"라고 말했다.

오 명예교수는 "불교계는 무력한 속명론에 빠지는 것을 경계해야 한다. 우리 주



위에서 보는 경제적 불의나 인권유린 같은 사태에 대해 참된 인간성 회복으로 불자들이 나서야 한다"고 역설했다.

오 명예교수는 이번 사건을 계기로 심층종교로서 종교계가 발전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오 명예교수는 "지금의 내가 복을 받기를 바라는 종교는 표층에 머무르는 종교에 불과하다"며 "나의 욕심을 버리고 나를 찾는 수단이 되는 심층종교가 돼야 한다"고 말했다.

오 명예교수는 이어 "불교적 관점으로 본다면 탑진지에 켜진 나를 비우고, 참된 나를 찾는 과정을 걸어야 한다. 기독교적 용어로 본다면 신성 내지는 내 안의 그리스도를 찾기 위한 노력"이라며 "불교가 기독교와 손잡고 이시대에 걸맞는 삶의 지침을 줄 수 있는 살아있는 종교로 발돋움해야 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노덕현 기자

<강연요지 31면>

"성우상사 거위털 제품의 특징은 가볍고 따뜻하며 땀이 차지않습니다.(거위털이불,패드,베개) 강력한 흡습, 발산, 공기층 형성으로 체온을 33° ±1 유지하고 속면을 도우며 우리의 몸의 면역력을 증강시킵니다."

모든 제품 거위솜털 100% 간편한 세탁(물빨래)/다양한 사이즈(M,L,XL,77,88,99) www.namsungwoo.co.kr

 <p>누비 적삼 55만,50만,45만원 누비 바지 55만,50만원</p>	 <p>속조끼 230,000원(녹차) 148,000원(일반) 속바지 380,000원</p>	 <p>후드점퍼 410,000원 480,000원</p>	 <p>복대 50,000원</p>
 <p>다리토시 45,000원</p>	 <p>수면바선 80,000원</p>	 <p><소매 착용시> <소매 탈착시></p> <p>거위털 점퍼 (지퍼 타입) 320,000원</p>	 <p>조끼 180,000원</p>
 <p>저고리 500,000원 450,000원 350,000원</p>	 <p>목위머 16,000원</p>	 <p>목도리 28,000 / 50,000원</p>	 <p>목도리 28,000 / 50,000원</p>

·방수, 흡습, 발산 제품으로 땀이 차지 않습니다. 물수건으로 닦아 사용하셔도 됩니다.

 <p>바람막이 상의 180,000원 바람막이 하의 110,000원</p>	 <p>팔토시 20,000원(방수) 공강실 앞치마 32,000원</p>
 <p>공강 앞치마 20,000원</p>	 <p>휴대용이불 가격,색상,사이즈 다양</p>

성우상사

서울시 영등포구 영등포5가 20번지 B1 22호

대표 02)2679-2848 010-3707-7016